

계란유통 개선위해 새로운 경매제도 정착 필요



윤 석 현
본회 광주전남지부장

지난달 모 축산전문 신문에 '계란고시제 폐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된 것을 보면서 계란유통의 최근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는 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기사 내용인즉 현재 전국계우회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란의 농장출하가격 흐름을 파악하여 생산자들에게 전달해주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됨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 농장에서 거래한 시세를 조사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란농가에 계란 시세흐름을 전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를 보면서 생산자들의 위상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가에 대해 다시금 되짚어 볼 수가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과거로부터 불러와 말이 고시였지 상인과 거래시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현재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생산자간의 정보역할 밖에 의미가 없었는데, 이마저 법에 저촉이 되어 시행이 어렵다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해 오던 제도를 단번에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바뀌어 진다해도 수급조절이 병행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유통에 있어 혼란만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높다.

이처럼 채란농가의 유통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이를 이용해 상인들이 난가를 주도해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생산자들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풀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살펴보고 계란유통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 보았으면 한다.

첫째, 안정적인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사육수수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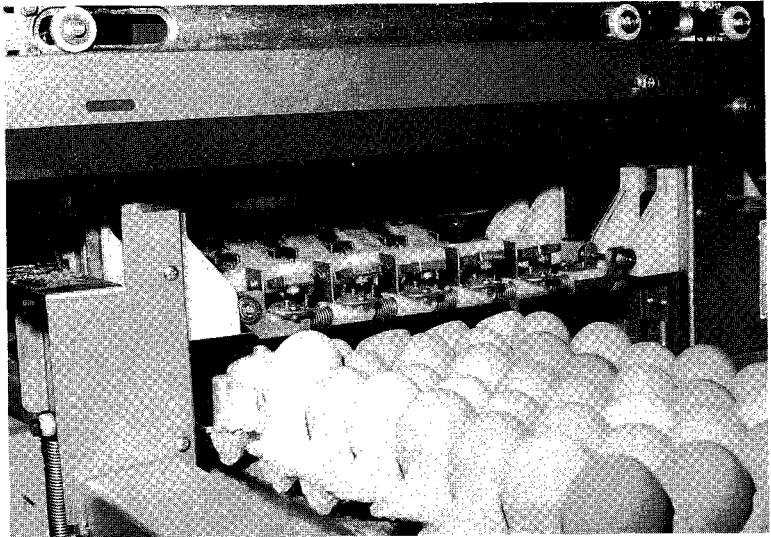
채란계 사육수수가 올해 들어 사상 최대치인 4천9백여 만수를 기록하면서 자율적인 사육조절 보다는 올해 상반기 난가의 장기 호황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직까지의 우리의 실상이고 보면 안정적인 사육조건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진정한 마음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규제완화가 유행어가 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채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미 선진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쿼터제, 양계업 자격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실효성 있게 연구검토하여 생산자 단체에서 대정부건의를 하고 정부에서도 아무리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정책을 편다고는 하지만 업계에서 건의된 사항은 신중히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반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호황과 불황의 반복이 계속되면서 유통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안전성 높은 계란생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오는 2000년은 밀레니엄시대로 모든 사회, 경제가 변화된다. 따라서 우리 채란인들도 현재 생산하고 있는 계란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국민 1인당 소비량을 200개 이상으로 올리는 등 발군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생물질 사용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발효사료 및 첨가제 등을 이용하여 자체 방어능력을 기르면서 자연상태의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규모에 맞는 GP센타를 체계적으로 확대시켜 파란,



오물란 등을 제거하고 보다 깨끗한 계란을 생산, 선별포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나만의 농장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상품란(브랜드란)을 개발하는 것도 밀레니엄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 보여진다.

셋째, 소비창출과 수매비축시설의 확대이다.

계란이 과잉생산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소비창출과 수매비축이다.

우리나라의 가공란소비는 전체 계란 생산량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웃 일본의 40%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물량이다. 따라서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가공식품 개발을 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수한 계란 가공품 개발이 이루어 질 경우 수출시장 기반을 확충할 수 있어 수입되는 계란과 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악덕상인을 배제해야 한다.

현재의 계란유통이 크게 흔들리는 것도 지금까지 유통의 역할을 제대로 운영을 해오지 못

한 상인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2~3일 사이에 난가가 사상 유례없는 20원까지 곤두박질 칠 수가 있었겠는가! 그렇게 난가가 하락했는데도 DC는 좀체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 생산자들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들이 단합하여 악덕상인들을 색출, 그들에게 계란을 판매하지 말고 선량한 상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필자는 현재 계란가격 고시가 어렵게 된 만큼 수요와 공급의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새로운 경매제도 정착이 절실할 것으로 본다. 타 축종은 경매제도가 정착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 오직 양계산물만 유통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일차적으로 유통단계를 축소시킬 수 있는 직거

래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즉, 농가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중간상인 마진을 없애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생산자 스스로 자조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100원을 투자하면 110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예로 우리 광주전남지부에서는 최근 푸리나코리아의 협조를 얻어 전남지역 버스에 계란의 우수성을 알리는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큰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생산자들이 자체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의 것을 알리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유통은 쉽게 개혁되지 않지만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는 채란인이 있는 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갈 경우 계란유통질서가 잡혀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양계**

개량 토종닭 분양

※ 분양 품종

- ★ 한협 3호 분양
- ★ 청둥오리 분양

※ 병아리 분양 및 상담

- 매주 [화요일] [금요일] 분양합니다.



동남농원

주 소 :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송천리 478번지
 전 화 : (0334)672-0088, 674-0606, Fax:(0334)674-0050
 핸드폰 : 011-307-7208, 호출기 : 012-1363-7208
 농 협 : 237020-52-019626, 예금주 : 윤 용 구
 우 체 국 : 101634-0021930, 예금주 : 윤 용 구